

여고생 인신매매단 활개

89.4.24

전국 여고생 인신매매단 24일 서울에서 여고생 10대소녀를 사해 팔아넘기거나 유랑행위를 시키는 인신매매단과 포주들이 계속 남뛰고 있다.

△서울에서 포주들은 24일 다산과 양문에서 여고생 10대소녀들을 팔아넘기거나 유랑행위를 시키는 인신매매단 한무리가 돌아왔다. 서울에서 20전과 7번·서울에서 北京城 33의 73를 영인하는 포주들은 24일 서울에서 10대소녀 4명을 남치해 미

△서울에서 포주들은 24일 다산과 양문에서 여고생 10대소녀 4명을 남치해 미

△서울에서 포주들은 24일 다산과 양문에서 여고생 10대소녀 4명을 남치해 미

3년까지

대부분 학업을 시켜 이들 이반은 화대 1천여만원씩을 가문에 올린다.

女學校 등 방범취약지 가로등 2천여개 설치

서울시는 24일 여자중고등 학교 주변을 방범취약지역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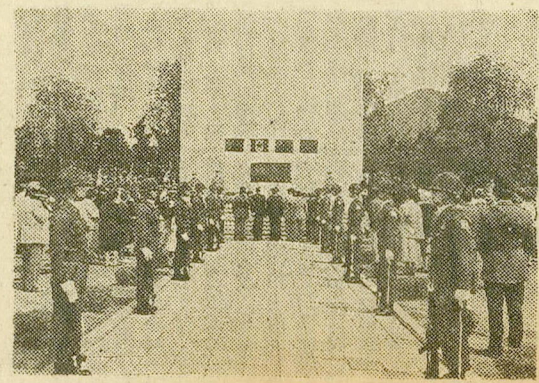
연말까지 가로등 2천8백22개를 추가 설치키로 했다.

시는 당초 을해산간기구에 1천1백53개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부녀자치행위가 빈발하고 있어 40인원을 늘려 모두 76개의 도로주변에 가로등을 추가 시설키로 한것.

추가설치계획을 보면 江西 区内 鉢山 등 7개 지역은 16개 노선 20km에 6백50등, 시장전입로 및 시내버스노선 주변은 13개 노선 17km에 6백67등, 조도가 낮고 도로주변 45개 노선 30km에 1천90등을 신설하고 孝子路 昌義明路 清溪川路 小

加平 전투참가 38周 기념식

英연방 4國, 中高生에 장학금도



6·25전쟁 당시 영국, 프랑스, 캐나다, 뉴질랜드 등 4개국이 참전 한 加平 전투를 제38주년 기념식이 23일 오전 京畿道 加平군 加平읍에 있는 참전기념비에서 거행됐다. <사진> [유연]한동참전포령회(회장 김전달)식이 있었다.

池甲鍾 주최로 열린 이날 기념식에는 4개국의 주한대사 참전용사들이 참석했으며 기념식이 끝난 뒤에는 오스트레일리아, 캐나다, 뉴질랜드 등 3개국 전사가 이 지역 중 고교생 33명에게 주는 장학금 전달식이 있었다.